

◆ 교회목표 ◆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우기전 편집국장:조선근

겨울 계절학교 출발!!!

보충수업과 특별 영성훈련의 기회

매해 겨울방학을 중심으로 모이는 겨울 계절학교가 지난주 1월 10일~13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고등부를 시작으로 출발했다.

고등부 수련회는 '기독교생의 시간관리'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강사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와 고등부 지도 장봉생 목사였다.

1일 금식, 산기도, 누가복음 통독, 영화 감상('예수') 등의 예년과 다른 특이한 프로그램에 학생들은 흥미를 가지고 적극 참석하였다. 이번 수련회는 참석한 학생들이 시간관리를 잘함으로 그들의 학업이나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도록 하는 문제와 영성을 강화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3박 4일간 진행되었는데 270여명의 학생과 50여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은혜 충만한시간을 가졌다.

겨울 계절학교는 이처럼 정규 주일 공부 시간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또한 특별한 프로그램과 강사로 영성을 강화시켜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살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충분한 준비와 참여로 그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는 오늘날 날이 갈수록 세상 교육에 대한 시간적 투자가 많아짐에 따라 주일에 1, 2시간 정도밖에 안되는 교회교육으로는 충분한 신앙교육이 어렵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겨울 계절학교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고등부를 시작으로 출발한 계절학교는 1월 중에는 1월 19~21일은 중등1부 수련회, 1월 24~26일에는 중등2부 수련회, 1월 25일은 청년2부 수련회, 1월 31일~2월 3일은

대학부 수련회가 연이어 있게 된다. 그리고 초등1부에서 초등6부까지는 2월 21일~21일만에 있게 된다. 성도들의 정성어린 기도과 사랑의 관심이 요구된다.

각 교회학교 겨울 계절학교 개요

구분	주제	장소	실시일	강사
영아부	지혜로운 사람	영아부실	2.21-22	정연희
유치부	믿음의 어린이	교205, 새가정부실	2.21-23	김정자
초등1부	믿음으로 자라나다	교 212	2.21-23	김필수
초등2부	구원받은 어린이	교 314, 301	2.21-23	정갑신
초등3부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믿는 어린이	교 307	2.21-23	이인우
초등4부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교 414	2.21-23	장상기
초등5부	천국일꾼이 되자	교 407	2.21-23	성봉환
초등6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교 507	2.21-23	한용관
중등1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충현기도원	1.19-21	김희수, 김찬곤, 윤삼중
중등2부	믿음을 확증하라	충현기도원	1.24-26	이종대
중등3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충현기도원	2.21-23	정광욱
고등부	기독교생의 시간관리	충현기도원	1.10-13	장봉생
대학부	이사야서 강해	충현기도원	1.31-2.3	이병각
청년1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충현기도원	2.27-3.1	현상민
청년2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갈릴리홀	1.25	권성수
사랑부	꿈꾸는 어린이	사랑부실	3.1	임성환
에비다부(학)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충현기도원	2.21-23	김성윤, 이준우

직분자 수련회 감사함으로

지난 12, 13일 양일간, 전직분자 모여

지난 12, 13일 양일간 본당과 교육관에서는 1994년도 직분자 수련회가 있었다. 13일 오후 6시 4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된 수련회 첫날 예배에서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담임)는 '직분자의 영성과 사명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설교에서 김상복 목사는 교회는 일반 사회 기업과는 달라야 하며 참된 영성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라고 설교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

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란 내가 그리스도로 가득찬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위한 25가지의 훈련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예배가 끝난 뒤 2부 시간에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94년도 목회방향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이 있었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강의를 통해 '여름과 긴 터널을 지날 때 저쪽에서 희미한 빛이 비추으면 터널의 끝에 가까운 것처럼 지금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의 성취를 눈앞에 놓고 A.D 2000년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시기'라고 밝히고 급변 한해 동안 기도의 불결이 얼마나 참으로 영성이 개발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한해가 되기를 부탁했다.

또한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주후 2000년까지 민족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1. 기도운동 확산, 2. 구역예배 활성화, 3. 새가족 양육 강화, 4. 두 사람 이상 선교사 파송, 5. 북한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94년도를 화약창고 확산있게 전망했다. 한편 13일에도 같은 시간에 찬양으로 시작, 1부 예배에 김상복 목사는 '교회유혹과 직분자 헌신'이란 제목으로 설교하였고 2부에는 각 직분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특강이 있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직분자들은 한 해 동안 맡은 위치에서 충성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였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총 632명을 대상으로 경로심방 1-2월 중에

교회에서는 각 교구별로 75세 이상의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경로심방에 나섰다.

1월과 2월에 걸쳐서 실시되는 이 심방의 대상자는 총 632명으로 각 교구마다 교역자와 교구의 식구들이 방문하게 된다. 이것을 계기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전도의 기회가 되며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축복과 기쁨을 나누며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될 것이다.

각 교구별로 실시되므로 많은 기도의 준비로 열매 맺는 시간들이 되어야겠다.

윤용규 목사

홍콩 충현교회로 파송

지난 13일 임시당회에서는 홍콩충현교회에서 사역하던 김은태 선교사 후임으로 윤용규 목사(제12교구, 예배위원회, 안수집사회 지도)를 파송하기로 결정했다. 김은태 선교사는 선교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윤용규 목사(33.9.5)는 73년 본 교회 장로로 장립되어 섬기다가 81년도에 교육전도사로, 84년 교육강도사로, 85년도부터는 본 교회 부목사로 현재까지 사역해 오고 있다.

가족으로는 사모(박월희, 59세)와 슬하에 1남 4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학원전도회에서 특강

'대중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의 저자 신상언 집사를 강사로

학원전도회에서는 1월 21일(금) 1시에 베다니홀에서 교회학교 교사와 대학부, 청년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중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다.

강사는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의 저자인 신상언 집사(은누리 교회)이며 메시지 전달, VTR의 상영과 Study Book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교사들에 많은 참여로 학생들에게 바른 현대문화를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뿐만 아니라 청년회원 및 대학생들도 많이 참석하여 대중문화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전국찬송가 경연대회에서 초등6부 대상수상

지난 13일(목)에 대구동진교회에서 열린 제16회 전국찬송가 경연대회에서 본교회 초등6부 찬양대가 대상을 차지했다.



본

문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2절에서 4절까지를 말과 행동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6, 7절을 보면 그들은 지나친 명예욕과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으로만 끝난다면 성경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야 할 아무런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 가정의 지도자들 아니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 세 가지 부족한 것

첫째는 진실성의 부족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적한 가장 중요한 첫째 항목이 외식주의, 즉 진실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3, 4절을 보면 저들은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

다. 즉 외식주의자였습니다. 이 말은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연극배우라는 말입니다. 연극배우는 자기 마음속에 아무리 슬픔이 있어도 그 시나리오대로 웃어야 하듯이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과 같이 불일치할 때에 그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또 그들은 허영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외식주의는 겉으로 보면 아주 경건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생활은 이 가르침과 전혀 부응되지 않고 너무나 진실성이 부족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점입니다.

둘째는 사랑의 부족입니다.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남에게 짐만 지우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무거운 짐'이라고 했는데 때때로 종교가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타리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구약성경으로부터 613개의 율법을 찾아내고도 마치 우리가 짐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타리를 쳐 놓듯이 율법마다 전부 율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안식일 율법에다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되는 39가지의 규정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잔뜩 만들어 놓고 저희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하고, 저희들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교인들을 달달 복애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겸손의 부족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경건을 밖으로 나타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네모난 상자 같은 경문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옷에는 613개의 율법을 늘 기억하고 지킨다는 뜻으로 옷술을 크게 만들어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겸손이나 경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은 전혀 겸손이 없었음에도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듣고 싶어서 기도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네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합니다. 또 구제를 할 때는 나팔을 불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들은 존경받는 자리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나 결혼식에 가면 상좌에 앉기를 좋아했고 또한 랍비나 아버지와 같은 영광스러운 칭호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선생님 하고는 다른 굉장한 칭호입니다. 또 이들이 좋아하는 '아비'입니다. 캐톨릭에서 사제를 신부라고 하는데 그 부자가 아버지 부(父)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부를 때는 아버지(father)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자녀라는 뜻입니다. 사탄미끼가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바로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최초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질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정통 교회와 정통 실천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정통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리만 정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도 정통이어야 합니다.

2. 본문이 주는 교훈

첫째로 종교의 거짓된 허울을 벗기지 않으면 종교는 인간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종교인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허울을 벗어야 합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려

충현장단



세 가지 부족한 것

(마 23:1 - 12)



신성중

<목사·당회장>

고 자꾸 무엇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고달픕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남이 보든 안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 안에서 높은 칭호를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이것은 교회 안에서 높은 칭호라면 높은 칭호죠. 그러나 그것은 다 봉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칭호를 좋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욕심을 내어 너무 탐하면 안됩니다.

셋째로 행함없는 교훈은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말과 입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약 2:14-26). 저와 여러분은 항상 행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되고 은밀히 하나님만 아시도록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넷째로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가질 수 있는냐는 방법의 제시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아도 제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비결입니다. 또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바르게 가질 수 있는냐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은혜의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처럼 사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사람의 마음 그릇을 보고서 그만큼 축복

을 주십니다.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 그릇을 다른 말로 하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본연의 위치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바

울은 율법의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나는 죄인의 피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흠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꼈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조금 은혜 받고는 팔딱팔딱 뛰며 막 휘젓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더 크고 깊은 은혜는 못받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에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상을 받았다가 교만해서 그것을 다 빼앗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그리고 사울 왕과 헤롯 왕이 그 대표자입니다. 벨사살 왕의 일화는 아주 유명하지요? 어느날 벨사살이 교만하게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성전기명들로 술을 마시며 손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할 때에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베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이었습니

다. 여기서 테겔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당신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의 해석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할 때에는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저는 우리 충현교회가 이 진를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그릇도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더 커서, 다시 말해서 어느 교회보다도 겸손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상급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한번 달아봅시다. 내게 진실성이 정말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이 있는가, 내가 혹시나 교만하지는 않는가, 나의 부족은 무엇일까, 내 가정의 부족은 무엇이며 우리 충현교회의 부족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자신을 달아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쓰고, 베풀고, 나눠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풍조



지금쯤은 좀 나아진 셈이지만 우리 나라만큼 불신풍조가 심한 나라도 드물 것이다. 정부가 안할 것이 라고 발표하면 반드시 할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었고, 정부가 할 것이라고 하면 안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이런 불신풍조가 하루 이틀에 생겨진 것이 아니고, 지난 32년 동안의 군사 독재정치의 결과이다. 역지로 여론을 조작하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리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를 본받아 진실되게 사는 것이다. 미국의 달라이 기록된 대로(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믿음을 회복하는 길뿐이다.

글 / 신성중 목사

◆ 사랑이 있는 곳 ◆

에바다부의 주일은 이렇게 시작된다

막힌 침묵의 담을 수화로 허물며

강 현 주
(에바다부 제자반교사)“정아야!”
“.....” (조용)

에바다부 예배실 맨 앞자리에 있는 제자반 학생을 불러본 나의 음성은 이미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만사를 접어두고 달려가 그 손을 붙잡는다. 먼저 미소를 지은 후, 부족한 수화로, 아니 온 몸을 이용한 sign languages로 말한다. ‘알았다’고 고갯짓을 하며 미소로 답한다.

에바다부의 주일은 이렇게 시작된다. 농아인의 시각적 언어수단인 수화를 통해, 막힌 침묵의 담이 차츰 허물어진다. 하나님의 선물인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청각 손실 때문에 잃어서 ‘불편해 하는’ 사람이 바로 농아인이다. 그러나 세상의 때물은 소리에 대해 맑고 건강함과, 특히 신앙생활의 순수함으로 우리는 농아인의 친구됨을 진정 기쁘게 생각한다.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를 접하고 농아인을 만난 사람들은, 한때는 무관심 했거나 두려움 조차 느꼈던 자신들의 마음이 그들로 인해 변화되고 뜨거워졌다고 고백한다. 그들을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을 차별없이 사랑하시며, 또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대하는 듯 하다고 말한다.

또한 말없는 침묵속에서 눈빛 만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으며,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느꼈다고도 말한다. 이들 건청인(정상인)의 말이 아니더라도, 주일을 함께 생활하는 에바다부원들은 겸손히 낮아지는 모습을 배우며, 소리 없이 살아있는 감동을 느끼면서 ‘사람남는 어부의 심정’이 되어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본받아 제자로서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에바다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청지기는 농아인과 건청인 모두이다. 마치 앞 바퀴와 뒷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하는 자동차처럼, 에바다부는 협력된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서 서로를 위한 귀와 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1994년의 문을 열려졌다. 연초부터 마련한 에바다부의 많은 계획들이 역동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순풍에 항해하듯’ 열매맺기를 조용한 마음으로 바란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모교회 만나와 주보, 계간충현지와 주간충현지가 도착하여 은혜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에는 모교회에 계셨고 지금은 선박선교사로 있는 김양일 목사님과 국제전화 통화를 했는데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현의 온 성도님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모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위원회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의 뒷받침 아래서 93년도를 마감할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전후하여 주일학교 학생, 기타 많은 성도 여러분들께 주께서 천배나 열배 맺게 해 주시길 기도 드립니다.

모교회 만나와 주보, 계간충현지와 주간충현지가 도착하여 은혜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에는 모교회에 계셨고 지금은 선박선교사로 있는 김양일 목사님과 국제전화 통화를 했는데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12월 16일에는 교회설립 40주년 기념선교대회 말씀 태일과 위문 카드, 성도님들의 성탄 카드, 연하카드, 그리고 1994년도 교회 카렌다 5부가 함께 도착하여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김창인 원로 목사님과 신성종 목사님으로부터 성탄카드가 도착되어 큰 격려와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18년전에 일본에 파송된 이후 서원하고 아침새벽기도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모교회에서 보내주신 설교 태일과 충현의 만나, 극동방송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경봉독, 찬송 등의 순서를 통해 생명의 양식을 얻고 주 안에서 능력을 얻어 진료소 진료사역에 임하고 있으며 대기실에 전도지를 비치해 두고 이런 것들을 통한 결신자 野越孝子(52세)와 小田裝(83세) 등 여러분들을 돌보고 있으며 월평균 6-7명 정도를 심방합니다. 심방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 인삼차 등을 선물하면서 주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갖습니다.

오래전에 교제해 오던 광산교회 이등변자, 선옥림씨, 襟堂교회의 상송전자 등 여러 자매님들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사랑의 전화를 하면서 철 따라 선물도 보내면서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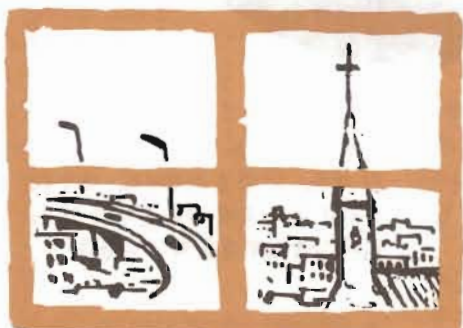
또한 여러 교포성도부부들과 교제, 심방, 조의를 하면서 주 안에서 더욱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진료소에서 함께 하는 동기 의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일본 농촌선교, 일본 복음화 그리고 남북통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94년 3월 31일로 이곳 진료소 사역이 끝나게 되는데 이후 계획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향후 방향이 결정되면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
유병세, 이윤호 올림

□ 징검다리 □

멀리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지키고자
달려나오는 성도들을 바라 볼 때에
목사인 나는 감동을 받는다

김 광 국
(목사, 교육훈련원·한국교회성장연구원·7교구 지도)

『아직도 날이 밝지 않은 주일 아침 남부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강변도로, 88도로, 중부고속도로, 서울 주변도로를 통하여 교회에 간다는 일념으로 차들이 속속 경기도에서 서울 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는 교회 십자가를 보며 차 속에 잠자는 아이들을 깨운다. 아이들은 입이 찢어질듯이 하품을 하며 졸리는 눈을 떠들려고 노력하지만 금방 또 잠들어 버린다. 아이 엄마는 아이들을 깨우려고 계속 흔들어 보지만 소용없다. 드디어 교회에 도착했다. 아빠는 재빨리 차문을 열고 아이들을 끌어내고 뺨을 정성차리라고 살짝 쳐본다. 그리고 손에 성경찬송가방을 쥐어 주며 ‘이따가 만나홀에서 국수 먹자’ 하며 약속을 다짐한다. 아이는 대답하고 자기가 가야 할 주일학교로 열심히 뛰어간다. 아빠와 엄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며 인사한다. 그리고 아빠는 아빠 대로 엄마는 엄마 대로 자기가 봉사하고 있는 부서로 발을 옮긴다.』

멀리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지키고자 조금 더 자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며 일찍부터 서둘러 교회로 달려나오는 성도들을 바라 볼 때에 목사인 나는 감동을 받는다. 새벽부터 서둘러서 교회에 오기까지 2-3시간씩 차를 타면서도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그들이 있기에 충현교회가 그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 나가지 않는가! 몸이 아파도, 눈 비가 와도, 아무리 장애되는 조건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알아 주시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오는 그의 신앙들이 자랑스럽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들이 어디 있는지 감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소원하는 기도제목마다 주님께서 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 이 난은 교역자들이 그들의 목회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적는 난입니다. 순서는 이름의 ‘가나다’ 순입니다.

찬양대원 모집

각 찬양대는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음악에 소질이 있는 세례교인이면 지원이 가능한데 전 파트에 걸쳐 모집한다. 기간은 1월 30일까지이며 접수는 사무국 102호실이다.

에바다부에서

수화교육생 모집

교회학교 에바다부는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화교육을 1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매주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 교육관 308, 305호실에서 모이는데 교육은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중급, 고급반은 기초반을 수료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에바다부실로 하면된다.

94년도 첫번째

학습·세례식 및 성찬식

94년을 맞아 지난 1월 7일(금)에 처음으로 실시한 학습·세례식에는 학습 146명, 세례 107명, 유아세례는 24명, 입교 54명, 개종 6명으로 총 337명이 받았으며 당회장 신성종 목사, 윤용규 목사, 김성윤 목사, 최인근 목사, 임성한 목사가 집례했다.

한편 지난 주일 I, II, III, IV부에는 성찬식을 가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새로운 한해로 살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 지난주일 주일에배 시간에 가진 성찬식(우)
학습·세례식에서 유아세례를 베풀고 있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좌)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와 당회장 목사의 사역을 붙들고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17일(월) -19일(수) 안산지역연합제교회 설교(안산 반월교회)
· 신성종 목사님 : 18일(화) 기독교 21세기 운동본부주최 청소년 동계수련회 설교(양수리 수양관), 21일(금) 세계교회 목회연구원 목회자 세미나 강의(서울교육문화회관)
2.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날을 어서 속히 허락하여 주소서.
3. 각 교회학교 겨울수련회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세우신 강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소서.
4. 각 구역이 열심히 모여 기도도 뜨거워지게 하소서.
5. 새가족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소서.

1월 23일로

제직원 사진 촬영 마감

미촬영자는 사진첩에서 누락

교회설립 40주년 기념 제직원 사진첩에 사용할 사진 촬영의 일정이 1월 23일(주일)로 끝난다. 사진촬영을 아직도 하지 않은 제직들은 사진첩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빠른 기간내에 촬영에 임하기를 바라고 있다.

- 대상 : 원로장로, 장로, 교역자, 원로집사, 집사, 원로권사, 권사, 명예직 권사, 남여서리집사
- 촬영시간 :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50분까지
- 촬영장소 : 선교관 407호(충현사진방)

◆ 부서를 찾아서 ◆

전화교환실 / 선교관 206호

교회 내외의 모든 곳을 이어주는 곳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며 등록교인이 된 사람을 볼때 큰 보람과 책임감을 느껴,
장난전화나 폭력전화엔 전도함으로 대처
꼬마들의 장난전화는 삼가해 주었으면

비가 올듯말듯, 겨울 날씨가 답답하게 얽힌 화색빛이 포근히 감도는 수요일 오후 기자는 선교관 206호에 위치하고 있는 교환실을 찾았다. 얼굴보다도 언제나 아름답고 상냥한 목소리가 더 익숙한 교환실의 두 주인 김 미란, 김 경성 선생이 환한 미소로 맞아 주었다.

우리 교회가 이곳 역삼동으로 이전한 뒤부터 명실공히 교환실로서 모든 시스템과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교회와 외부, 그리고 구내에서 부서와 부서간의 모든 연결다리를 놓고 있다. 인터뷰 도중에도 쉴틈없이 계속해서 걸려오는 전화, 전화들. 교환대 앞에 앉아 있으면 전혀 딴 생각을 하거나 한 눈을 팔지 못할 정도로 항상 바쁘지만 특히나 오전 10시부터 점심시간까지는 현재 가동중

인 17개의 국선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통화량이 폭주한다고 한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리라고 안내한 후 일단 홀딩시킨 후에 순서대로 연결시킬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에 교환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냐, 교환실의 사정을 알리 없는 몇몇 분들은 '왜 전화를 끊느냐, 빨리 바꾸라'는 등 언성을 높이는 분들이 가끔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통화자들은 전화에질이 훌륭해요. 수고가 많다고 격려해주며 작은 친절에 감사를 표현해올 때는 무더운 여름날의 얼음냉수 같은 기쁨이 솟지요."

기억에 남는 보람있는 일은 가끔 교회전택을 못하고 방향하는 사람들이나 무작정 전화를 걸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

개하는 일이다. 그들중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모습을 볼 때는 참 기쁘고 감사하다고 예쁘게 웃는다.

"힘든 일은 우리 교회가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교단적으로나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일인데도 어떤 불만이 있으면 무조건 전화를 걸어 마구 호통을 쳐서 영문도 모르는채 야단을 먹는 어이없는 일이 종종있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꽤 자주 걸려오는 장난전화나 폭력전화예요. 처음에는 이런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짜증도 나고 힘도 들었지만 기도 중에 지혜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요되지 않고 차분하고 진지하게

'이 세상과 인간은 점점 타락하고 변해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주지요. 이 말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는지 전화를 끊어요."

"지면을 통해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주일날은 몹시 바쁘는데 꼬마들이 전화장난을 많이해요. 좀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구

요. 그리고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생각보다 교환실의 통화량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서, 구내전화 목록표나 114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외부 전화번호는 저희들도 114의 안내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떠한 전화에도 상냥하고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항상 넘치기를 기도해 주세요. 직접 교회를 찾지 않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의 목소리에 따라 교회의 이미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사명감에 어깨가 무거워져요."

비록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바쁘게 교회의 모든 곳을 이어주는 곳. 믿음 안에서 기도를 통해 힘을 공급받아서 있는 그곳에서 기쁨으로 자신의 할 일을 감당하는 김 미란, 김 경성 선생에게, 새해에는 더욱 충만한 은혜 속에 좋은 일들이 있기를 기도하며 살짝 교환실을 빠져 나왔다.

▲ 교환실에서 기쁨으로 자신의 할 일을 감당하는 김 미란(우측), 김 경성(좌측) 선생

